1820년 뉴저지 셀럼 재판소 앞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었다.
로버트 존슨이라는 한 남성의 토마토
공개시식을 보기 위해서였다.
"독초를 먹다니!" 로버트가 토마토를
크게 한 입 베어 물자, 군중은 애도를 표했다.
지역 의사는 그가 곧 죽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걱정과 달리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용감한 로버트 덕분에
토마토는 독초의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토마토가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북미)으로
건너올 무렵에 일어난
유명한 일화다.

글 손은경

태양을 닮은 강렬한 빨간 맛
독초 누명 벗고
레드푸드의 제왕으로 등극하다

토마토

Tomato

독초 누명으로 200년간 찬밥 신세

유럽에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속담이 있다. 토마토를 자주 먹으면 건강해져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토마토는 세계보건기구가 '장수에 도움이 되는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한 대표적인 슈퍼 푸드다. 지금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토마토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

남미 페루 지역에서 재배되던 토마토는 1492년 이탈리아 탐험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뒤 16세기 본격적으로 유럽에 전해졌다. 그러나 200년이 넘도록 식용작물로 인정받지 못했다. 토마토를 처음 본 유럽인은 윤기 나고 새빨간 생김새가 유독성 가짓과 식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독이 있다고 여기며 오랫동안 토마토를 관상용 식물로만 재배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동안 독초로 규정하고 식용을 금지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스, 소스, 각종 요리의 재료로 사용하는 지금으로써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실제로 토마토에는 독이 있다. 다만 줄기와 잎에만 있고 사람들이 즐겨먹는 붉은 열매에는 없다.

관상용 식물에서 벗어나 소스로 변신

독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풋풋한 맛 때문에 사람들은 토마토를 기피했다. 홀대받던 토마토가 관상용 식물에서 벗어나 식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탈리아 나폴리 사람들의 공이 컸다. 17세기 나폴리 지역에서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가 처음 등장했다. 사실 원해서 토마토를 먹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곳에 찾아든 극심한 기근이 토마토를 가까이 하게 만들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토마토를 먹었다. 당시 스파게티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던 나폴리는 저렴한 가격의 토마토를 소스로 사용했다.

그런데 배고픔을 이기려고 먹었던 붉은 열매는 생각보다 매력적이었다. 부드러운 식감과 스파게티 면을 감싸는 깊은 풍미가 입맛을 사로잡았다. 나폴리를 시작으로 이탈리아는 나날이 토마토 강국이 되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지금 토마토는 소스로, 요리로 다양하게 활용되며 이탈리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식재료로 자리 잡았다.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한 케첩

이제 토마토는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한 식재료가 되었다. 토마토를 활용한 수많은 요리와 소스가 있지만 그중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쉽게 구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것, 햄버거와 핫도그를 떠올릴 때 빼놓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은 '토마토케첩'이다.

많은 사람들이 케첩을 미국에서 만든 소스로 알고 있다. 그러나 케첩은 생선 발효 소스인 중국의 '키찹(ki-tsiap)'에서 시작됐다. 중국에 왔던 네덜란드와 영국의 선원들이 키찹을 자국 입맛에 맞게 변형시켜 유럽에 전했다. 유럽인들은 버섯, 과일, 호두, 어패류를 이용해 키찹의 맛을 재현했고, 그렇게 만든 조미료를 '케첩'이라고 새롭게 이름 붙였다. 케첩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또 한 번 변모한다. 달고 맛있는 토마토케첩이 등장한 것이다.

재판에도? 다이내믹한 토마토의 역사

토마토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토마토는 소송을 통해 채소가 됐다.

19세기 말 미국은 채소와 과일의 관세가 달랐다. 채소를 수입하려면 19%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 했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미국의 공무원은 토마토를 채소로, 수입업자는 과일로 주장했다. 당시 연방 최고 법원은 토마토가 디저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소로 판결했다. 한국에서는 토마토를 과채류(채소의 종류 중에서 과실과 씨를 식용으로 하는 것)로 규정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몇몇 나라에서는 토마토가 과일인지 채소인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수백 년의 세월동안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겪으며 여러 모습으로 거듭나온 토마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안겨줄지 기대되는 바이다.

Tomato